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 Vol. 21, No. 1, 225 - 242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박 선 경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신 나 라
백제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성중독 검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에는 예비조사에 전국의 성인 남녀 264명이, 본조사에 986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기존의 척도들과 질적 자료를 통해 개발한 자료를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122개의 예비문항을 추출하였고, 전문가의 내용타당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0문항을 선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 일상생활장애, 내성, 일탈적 성행동 증가의 4 가지가 확인되었다. 개발된 검사 도구는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신뢰도, 내적일치도를 보였고, 요인구조 역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척도와 높은 상관을, 성중독척도와는 중등도의 상관을, 인터넷중독과는 낮은 상관을 보이는 등 기존 척도들과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논의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의의 및 제한점, 향후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중독, 온라인 검사, 행위중독, 성문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87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E-mail: song@konyang.ac.kr

성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형태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점차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도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서울신문, 2014. 8. 23)과 대학교수 기내 성추행 사건(한국일보, 2014. 8. 13), 종교인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한국일보, 2015, 11. 9) 등에서 성범죄라는 용어와 함께 성중독 및 성중독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직접적인 성매매업소의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신·변종 업소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 풀쌀롱, 오피스텔, 키스방, 대딸방, 유흥주점, 모텔, 다방, 휴게텔, 티켓 다방, 패티쉬방, 성인 피시방, 립까페, 퇴폐 이용업, 트렌스젠더, 집결지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스포츠마사지 업소·안마시술소, 이발소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외국인을 앞세워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도 발각되거나(KBS, 2015. 10. 24) 공무원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까지도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YTN, 2015. 12. 21), 잘못된 성문화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1년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적발인원은 181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236명으로 11년 대비 30.4% 증가하였다는 통계적 수치로 보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한국 남성의 성매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성매매를 한번 이상 경험한 남성은 49%, 평생 성매수 횟수 8.2번, 최근 1년간 성매매 업소에 지출한 비용(회당 평균)은 13만 4000원이라고 한다(여성가족부, 2010).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도 한다는 점(최병일, 2004)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성문제들의 이면에는 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집착이 있으며, 중독적인 속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성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종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키도 한다. 이들의 범행과정과 성폭력 치료의 기법들을 보면 성범죄 중 다수는 성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미국에서도 Greenfield(1999)가 미국의 중독자는 현재 전체 인구의 5-10%가 인터넷중독에, 5%이상이 성중독에 빠졌고, 성매매, 자위, 성적인 인터넷 채팅 등의 위험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추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2년에 22,310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13.4%증가하였으며,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58.5건, 한 시간에 2.4건이 발생하였다. 더 심각하게는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2.7건, 한 시간에 0.1건이 발생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와 비슷하게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8,726건, 2012년에는 19,619건으로 5년 사이에 44%로 증가하였다 (사이버경찰청 수사 통계자료, 2013). 이렇듯 성중독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정리된 용어로서의 성중독(sex addiction)은 행위 중독(behavioral addiction)의 한 유형으로 설명되기 시작되었다. 행위 중독은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물질이 없이도 중독의 핵심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도박 중독, 연애 중독, 종교 중독, 권력 중독, 운동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송원영, 2012). 성중독에 대한 개념화를 시작한 Carnes는 성중독을 중독의 핵심 과정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성을 '정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normal use)'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로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했더라도 점차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서서히 성을 '오용'(misuse) 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물에 집착하거나 성적인 행위들을 추구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인 '성적 남용'(abuse) 단계가 된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자신의 파트너에게 만족을 못하고 오직 성적인 감각이나 오르가즘에만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어 불건전하고 난잡한 성관계에 빠지게 된다. 네 번째는 '의존'(dependency)으로 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돈, 시간, 대인관계 등을 모두 동원해서 성을 추구함에 관심을 집중한다. 종종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합리화, 변명, 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방어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는 비정상적인 성적추구 행위들을 반복하다가 성중독 사이클이 형성되어 약간의 두려움, 수치심, 분노와 같은 정서적으로 불편한 감정만 생겨도 중독 사이클이 발동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addiction) 단계에 처하게 된다(Carnes, 2001).

김성(2011)은 성중독자들을 면담하면서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탐색하였고 이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 성적 외상이나 좋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무분별하고 중독적인 성행위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후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일부 남녀 참여자들은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처절한 허무감,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성중독자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만일 누구든 자신의 중독적인 체험들의 은밀한 생활을 알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소외감을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고독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Carnes, 2001). 때문에 성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인 고통을 성적인 행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김성, 2012).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중독의 사이클과정 속에서 성중독자들의 17%가 자살을 시도하고 72%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성중독자의 자살감과 우울감은 중독자의 세계에 사는 것의 무력감과 허약함을 표현하는 것이다(Carnes, 2001).

이렇듯 성중독자들은 성행위나 자위를 한 후 수치심이나 절망감,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책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매우 외설적인 성행위에 빠져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중독자들을 무작정 비난하는 태

도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우울, 허망감, 자책 등)과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중독자들의 고통 또한 줄여주기 위해 성중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의 성중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만한 척도 역시 개발되지 않았다. 성중독은 성관련 행위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탐닉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중독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금지법 이후 국내에서 발달하고 있는 유사성행위 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성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성중독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중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척도로는 성중독을 처음 정의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Carnes(1983)의 성중독 선별검사(개정판)(Sexual addiction screening test-R, SAST-R, Carnes & Wilson, 2002)를 들 수 있다. 이 검사는 병원이나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중독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45문항의 진위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열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중독자들을 구분하고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처음 제작된 후 30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최근의 변화된 상황이나 행동특징을 추출하여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성중독을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는 강박적 성충동 척도(sexual compulsivity scale, SCS)가 있다(Kalichman and Rompa, 2001). 이 척도는 본래 HIV 긍정 반응이 나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충동적인 성적 행동을 측정하는 10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287명의 남녀에게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불안, 우울, 경계선적 성격 등의 특성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의 경우 타당화집단이 HIV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집단에게 확대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킨 Young (2001)이 개발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섹스 중독검사(CAI,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 http://netaddiction.com)도 있다. 국내에서는 이 CAI 척도를 김민(2003)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척도의 경우 문항 내용에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섹스에 할애하는 시간, 사이버섹스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여부, 온라인의 성적 강박행동 및 인터넷에 대한 의존적 특성, 사이버섹스에 기인한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통제조절력 및 행동 문제, 사이버섹스를 통하여 받고자 하는 보상욕구 여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행동의 변화 및 전이 여부, 비정상적 온라인 성행동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항목은 리커르트 방식의 6점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0-30이면 중독 아님(none), 31-49는 경미함(mild), 50-79는 중등도(moderate), 80점이상 100점은 중증(severe)인 중독상태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최근의 인터넷 기반 성 중독을 측정하는 것에는 유용하나 이와 동시에 사이버섹

스에 한정되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비행과 사이버 음란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박선경과 송원영(2014)이 개발한 남자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경우 총 16문항으로 응답 항목은 리커르트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을 갖추고 있다. 이 척도는 남자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가능하나, 대상이 남자 청소년에 국한되어있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중독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성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중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반적인 성문제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 외에도 성중독을 측정하는 몇몇 도구가 있으나 위의 도구들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행동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흥미위주의 비과학적인 검사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들이 한국판으로 타당화가 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성중독 진단도구의 개발피 필요하고, 이는 성중독의 개념에 대한 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치료법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주제이기에 온라인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서 솔직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용 성중독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방 법

참여자

예비조사를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2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대규모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20세-69세)를 지역별 층화표집을 통해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였고, 같은 답에 반복적으로 응답 등의 불성실한 응답자 14명의 결과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예비조사에 참여한 동일대상 260명을 대상으로 4주 후에 다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온라인용 성중독척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걸쳐 구성된 30문항이다.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6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CAI,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사이버 음란물의 중독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던 척도로, 사이버섹스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Young(2002)이 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김민(2003)이 수

정, 번안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로 '결코 아니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30점은 비중독이고, 31~49점은 경미한 중독이며, 50~79점은 중등도의 중독 상태, 80~100점이면 중증 중독을 나타낸다. 김민(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 .96로 나타났다.

성중독 선별검사(개정판) (Sexual addiction screening test-R). 성중독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한 Carnes(2002)가 개발한 45문항의 진위형 검사로 열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13개 이상의 문항에서 '예'로 응답했을 경우 성중독자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 수용도.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번안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포함한 것을 사용하였다.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강간통념 문항을 9점 척도 상에서 찬반의 정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는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이 8문항,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이 4문항,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9점 Likert 척도로 '아주 반대(1점)'으로부터 '아주찬성(9점)'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KS척도).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서 개발한 K척도를 2011년도에 간추린 성인용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KS-A)을 사용하였다. KS-A척도는 전체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가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이 2문항, 금단이 4문항, 내성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시작하여 '매우 그렇다'가 4점인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9번, 10번, 13번, 14번은 역채점을 실시한다. 총 점수가 42점 이상 또는 일상생활장애가 14점, 금단 12점, 내성이 13점 이상을 모두 넘는 경우는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총 점수가 39점 이상, 41점 이하거나 일상생활 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정의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군이다. KS-A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경우 Cronbach's α = .85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절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 및 온라인용 성중독척도의 문항 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 및 기존에 개발된 성중독척도, 다른 중독관련 진단척도들 및 지난 3년 간 사이버 음란물과 성중독에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성중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였다(총 122문항). 그 다음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 1명, 현장 경험이 있는 석사 1명 그리고 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문항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중복된다고 판단된 문항들은 통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걸쳐 53문항을 선정하였다.

성중독척도를 구성하는 예비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제 성중독과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전문가 6인, 상담심리사 2인이었으며, 성중독의 특징에 부합되는 정도에 대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적합한 문항은 제거하였다. 문항선정 기준은 최소값 2점 이상, 평균 3.0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최소값 2점 미만, 평균 3.0미만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제거하여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예비조사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18.0을 사용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법은 주축요인추출, 사각회전이었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거하여 30문항을 선정하였다.

본조사에서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조사와 비교하였으며, 요인분석과 내용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일부 문항의 요인을 이동하였다. 이후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 (Tucker-Lewis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섹스 중독(CAI)척도, 성중독척도 개정판 및 강간통념, 인터넷중독 자기진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섹스척도와 성중독척도와는 높은 정적상관을 예상하였고, 강간통념 및 인터넷중독척도와는 중간 또는 낮은 상관을 예상하여 각기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해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표 1. 성중독척도 개발과정

예비문항구성	• 문헌연구, 기존 성중독척도 분석 → 122문항
⬇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문항 추출	• 1차 (개발자 및 전문가) → 53문항 • 2차 (전문가, 문항 적합도 평가) → 46문항
⬇	
예비조사	• 대상: 성인 남녀 260명 •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및 문항 재구성 → 30문항
⬇	
본조사	• 대상: 성인 남녀 1,000명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검사도구 완성	• 온라인용 성중독척도

표 2.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문항내용	요인			
		1	2	3	4
23	지나치게 음란물을 접하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숨긴적이 있다.	.914			
22	음란물을 그만 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본다.	.849			
19	자신이 성관계를 너무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736			
21	평상시에도 음란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694			
17	잦은 성행위(또는 자위) 때문에 자책한다.	.687			
24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	.685			
16	실제적인 성관계 시간 외에도 간접적인 성관계(인터넷, 포르노 등)를 거의 매일 즐긴다.	.655			
2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430	-.364		
18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나 공유하는 것보다 성행위를 더 선호한다.	.416			.302
30	하루의 대부분을 음란물을 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924		
26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869		
44	음란물을 보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779		
45	성적인 충동이 들면 제어하기 힘들다.		-.675		
29	안마, 키스방, 룸싸롱, 오피스텔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653		
46	나는 참지 못할 성적 욕구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자위(또는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620		
28	음란물 때문에 자신의 의무나 책임, 혹은 가정,학교,직장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있다.	.315	-.570		
37	장소 또는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술집, 바, 도는 유사 성행위 업소, 온라인 채팅 등을 찾는다.		-.507		
41	변태적인 성관계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		-.503	-.446	
27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성행위 방법을 찾게 된다.	.324	-.354		
38	음란물에서 본 장면을 실제 생활에서도 따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364		-.593	
34	주변 이성과의 성관계를 상상한다.			-.589	.304
43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 성관계를 한다.			-.564	
32	이상적인 이성과의 성관계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파트너와 비교한다.			-.549	
33	남들에게 말 못할 나만의 성적 판타지가 있다.			-.537	
6	음란물을 본 후 이성이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				.848
5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767
7	음란물 이용 이후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709
11	음란물 관련 배너 또는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는다.				.600
8	성관련 사이트(성인대화방, 포르노 사이트, 성인방송국 등)를 발견하면 즐겨찾기에 추가한다.				.574
10	현실생활에서 평범하게 채워지지 않는 성에 대한 환상을 맛보기 위해 익명의 대화를 하곤 한다.		-.363		.554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적일관성 계수로는 Cronbach's α와 Guttman 반분계수를 확인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검사를 4주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분석에는 PASW 18.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최초 개발된 122문항은 앞서 연구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46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재구성된 온라인용 성중독척도 예비문항들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의 응답에 대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사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 = .9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7562.23, $p < .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 결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으로는 큰 값의 고유값(eigenvalue) 확인, 스크리 도표 확인, 누적분산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이 전체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고유치 1.0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 4개의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변인의 60.51%를 설명하고 있어 각 요인별로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 추출된 4개 요인의 문항별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후,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은 각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순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만들어진 온라인용 성중독척도는 30문항으로 요인별 문항은 표 2와 같다.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성행동을 통해 만족감을

표 3.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N=986)

구분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	일상생활장애	내성	일탈적 성행동 증가	전체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	1				
일상생활장애	.73**	1			
내성	.74**	.70**	1		
일탈적 성행동 증가	.74**	.72**	.73**	1	
전체	.90**	.87**	.90**	.89**	1

** $p < .01$.

느끼게 되는 내용으로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성중독으로 인해 직장문제나 대인관계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장애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성중독으로 인해 성적인 행동의 증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과 관련한 문항내용으로 일탈적 성행동 증가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자신의 성적 상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음란물의 내용을 모방하려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용 성중독척도 3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4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중독척도 30문항을 주축요인추출로 회전방식은 사각회전으로 4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고 전체변인의 64.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30문항은 표 5와 같다. 성중독 전체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점수와 각 하위 요인 간에 r = .87~.90, p < .01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중독척도의 4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FI, TLI,* 및 *RMSEA*를 이용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는 χ^2 검증이 많이 쓰이지만,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 재인용), 동일한 모형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CFI 및 RMSEA가 각각 .870, .880, .079로 척도를 구성하는 4요인(내성, 일상생활장애, 일탈적 성행동 증가,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요인의 구조모형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타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준거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CAI), Burt(1980)의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및 번안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포함한 강간통념 수용도, 성중독 선별검사(SAST),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KS-A) 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4요인 모형	2821.477	399	.870	.880	.079

표 5. 온라인용 성중독척도 최종 30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괄호 안은 예비조사에서의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1(32).	이상적인 이성과의 성관계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파트너와 비교한다.	.72			
2(38).	음란물에서 본 장면을 실제 생활에서도 따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63			
3(33).	남들에게 말 못할 나만의 성적 판타지가 있다.	.60			
4(34).	주변 이성과의 성관계를 상상한다.	.57			
5(43).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 성관계를 한다.	.56			
6(41).	변태적인 성관계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	.53			
7(27).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성행위 방법을 찾게 된다.	.47			
8(30).	하루의 대부분을 음란물을 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76		
9(26).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75		
10(29).	안마, 키스방, 룸싸롱, 오피스텔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65		
11(44).	음란물을 보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61		
12(28).	음란물 때문에 자신의 의무나 책임, 혹은 가정,학교,직장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있다.		-.55		
13(46).	나는 참지 못할 성적 욕구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자위(또는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35	-.41		
14(45).	성적인 충동이 들면 제어하기 힘들다.	.36	-.40		
15(37).	장소 또는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술집, 바, 도는 유사 성행위 업소, 온라인 채팅 등을 찾는다.	.32	-.39		.32
16(22).	음란물을 그만 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본다.			-.90	
17(23).	지나치게 음란물을 접하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숨긴적이 있다.			-.84	
18(21).	평상시에도 음란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67	
19(17).	잦은 성행위(또는 자위) 때문에 자책한다.			-.63	
20(24).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			-.61	
21(16).	실제적인 성관계 시간 외에도 간접적인 성관계(인터넷, 포르노 등)를 거의 매일 즐긴다.			-.58	
22(19).	자신이 성관계를 너무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56	
23(2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31	-.46	
24(5).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70
25(11).	음란물 관련 배너 또는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는다.				.66
26(10).	현실생활에서 평범하게 채워지지 않는 성에 대한 환상을 맛보기 위해 익명의 대화를 하곤 한다.				.66
27(6).	음란물을 본 후 이성이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				.62
28(7).	음란물 이용 이후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60
29(8).	성관련 사이트(성인대화방, 포르노 사이트, 성인방송국 등)를 발견하면 즐겨찾기에 추가한다.				.55
30(18).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나 공유하는 것보다 성행위를 더 선호한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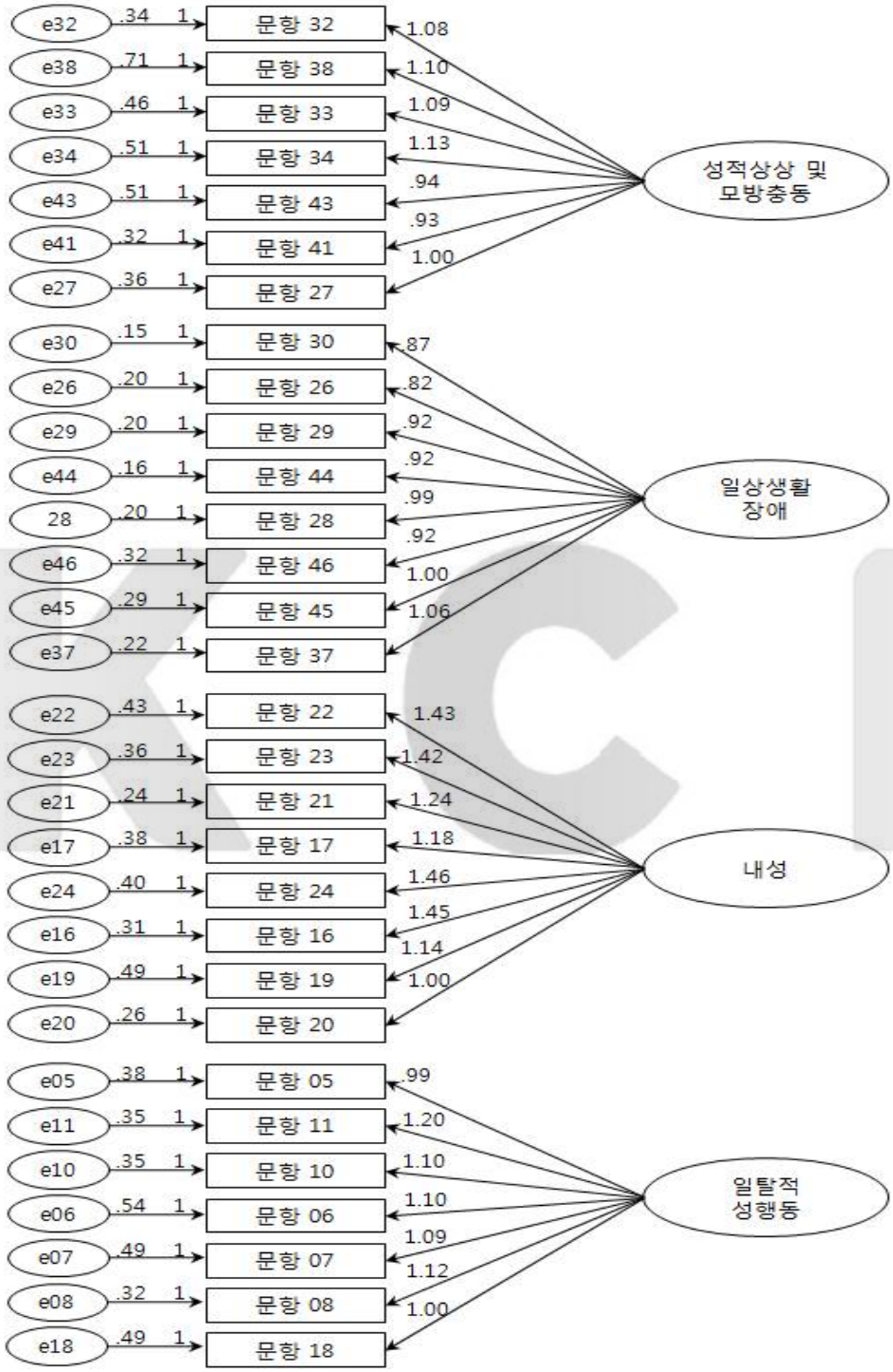


그림 1. 성중독척도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 6. 온라인용 성중독척도와 사이버섹스중독, 성중독 선별검사, 강간통념수용도, 인터넷중독과의 상관관계 (*N*=986)

척도		성중독척도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	일상생활 장애	내성	일탈적 성행동증가	전체
사이버섹스중독		.77**	.87**	.76**	.69**	.88**
성중독 선별검사		.54**	.45**	.49**	.44**	.54**
강간 통념 수용도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31**	.43**	.31**	.44**	.41**
	피해자의 성경험	.30**	.29**	.24**	.33**	.32**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40**	.46**	.35**	.49**	.47**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32**	.38**	.31**	.40**	.39**
	전체	.37**	.44**	.34**	.46**	.44**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19**	.36**	.30**	.23**	.30**
	가상세계 지향성	.42**	.41**	.36**	.40**	.44**
	금단	.25**	.35**	.28**	.25**	.32**
	내성	.23**	.24**	.27**	.15**	.26**
	전체	.30**	.40**	.36**	.29**	.38**

* $p < .05$, ** $p < .01$.

본 척도는 표 6에 소개된 바와 같이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r = .88, p < .01)와는 높은 상관, 성중독 선별검사(r = .54, p < .01)와 강간 통념 수용도(r = .44, p < .01)와는 중등도의 상관, 성인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r = .38, p < .01)와는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신뢰도 분석

성중독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반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Cronbach's α = .96, Guttman의 반분계수는 .90로 적절히 높았고, 피험자 일부(*N*=260)에 대해 약 4주 간격으로 재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7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신뢰도 분석

	내적일치도 Cronbach α (*N*=986)	Guttman 반분계수 (*N*=986)	검사-재검사 신뢰도 (*N*=260)
성적상상 및 모방충동	.887	.841	.72
일상생활장애	.918	.898	.68
내성	.918	.914	.73
일탈적 성행동증가	.873	.857	.74
전체	**.96**	.90	.7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용 성중독척도를 개발하

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과 성중독척도들을 분석하고, 전문가를 통한 1, 2차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본조사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반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들을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고 본 척도의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성중독에 대한 최근의 경향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비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중독척도 뿐 아니라 신문기사 등의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한 결과, '안마, 키스방, 룸싸롱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등의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문항이나 '성관련 사이트(성인대화방, 포르노사이트, 성인방송국 등)를 발견하면 즐겨찾기에 추가한다' 등 최근의 통신기술이 반영된 문항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문항들은 중독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남아 최종 문항으로 선택된 것을 고려하면, 척도가 가져야 할 심리적 구인의 정확한 측정과 시사성 및 문화를 반영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였다는 장점이 있고, 5~10년 후에는 개정을 통해 새로운 경향을 또다시 반영할 필요성도 갖게 된다.

둘째, 본 척도는 적절한 요인 구조를 갖고 성중독이라는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척도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7~.8 정도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적절히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각기 조금씩 다른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요인들은 '성적 상상 및 모방충동', '일상생활장애', '내성', '일탈적 성행동 증가'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Young(2002)의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Carnes(2002)의 성중독 선별검사 개정판(SAST-R)이 열가지의 하위유형을 미리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경험적인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성중독이 행위중독의 한 형태로서의 개념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중독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DSM-5(APA, 2013)에도 언급되지 않는 등 아직 개념적인 체계화가 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성중독의 행위중독적 개념화 및 측정은 향후 성중독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하여 성중독의 개념을 확고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DSM-5에 포함된 게임중독의 경우 조절손상, 내성, 강박적 사용 등 이와 유사한 요인들을 포함한 척도들이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최훈석, 용정순, 김교헌, 2013)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예비문항의 요인분석에서 18번, 27번, 41번의 문항이 본 조사에서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18번의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나 공유하는 것보다 성행위를 더 선호한다'는 문항은 '내성' 요인에서 '일탈적 성행위 증가' 요인으로, 27번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성행위 방법을 찾게 된다'와 41번 '변태적인 성관계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는 '일상생활 장애'에서 '성적 상상 및 모방충동' 요인으로 재배치되었다. 또한 요인이 재배치되면서 다른 요인에도 공통으로 부가되었

던 부하량들이 .30 이하로 낮아지게 되어 보다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역시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어, 보다 확고한 구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는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갖는다. 본 검사는 Young(2002)의 사이버섹스 중독과는 .88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는 온라인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중독된 행위를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필검사'인 것인 반면, 본 검사는 온라인 상황과 현실 상황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인 중독을 측정하는 '온라인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성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중독적인 자극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이라는 점에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와 성중독 검사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분석에서 사이버섹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할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이상에서의 상관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성중독의 양상이 시대와 매체의 발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3D, 홀로그램, 증강현실 등을 사용한 성관련 산업과 함께 이에 중독되는 취약한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Carnes(2002) 성중독 선별검사 개정판과는 .54의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비슷한 제목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지만 Carnes(2002)의 척도가 개념주도적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Young(2002)의 척도보다 본 연구와의 상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강간통념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이게 되는 성관련 사고로(이석재, 1999)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등의 소척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음란물을 통해 쉽게 전달되는 것으로서, 성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향후 성중독 및 포르노그래피 등의 성관련 매체와의 접촉과 강간통념, 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척도는 인터넷중독과는 .38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중독의 동기가 성자극의 추구 뿐 아니라, 자기표현, 홈페이지 관리, 성취, 소일거리, 편리성, 색다른 일, 친구만남, 자기공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박중규, 배성만, 2012), 약간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본 척도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척도는 각 요인별로 .8~.9의 내적일치도를 보였으며, .8~.9의 반분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성중독이라는 심리적 구인을 적절히 측정해내고 있는 신뢰로운 검사로 보인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77로 적절한 수준을 보이며, 성중독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양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을 민감하게 측정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본 척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성중독의 문제로 주관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주제이므로, 본인이 성

과 관련된 중독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찾아가서 치료받을 용기를 내기 쉽지 않고, 전문기관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본 검사는 온라인으로 개발과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면대면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자신의 중독적인 문제를 측정해보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유입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성범죄 고위험군에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와 성중독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상호 포함관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중독이 심해지면 범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에 성중독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은혜, 이주경, 2014). 또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가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법적으로도 심리치료 명령이 부과되고 있는 바, 성범죄 고위험군에게 본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성향이 높은 경우 동기강화 및 인지행동치료 등의 중독 치료 기법, 조절 실패와 갈망에 대한 대책(김세진, 김교헌, 2013)들을 활용하여 이들의 재범율을 낮추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중독군과 일반인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는 성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적으로 중독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공상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능장애를 보일 수 있다(신나라, 송원영, 2016). 따라서 본 척도를 통해 성중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면 성기능장애가 있는 성인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정신, 신체, 생활습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성중독의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성중독의 문제는 해마다 사건사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산업 역시 막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 기업 등에서 생활습관의 건전성이나 검진 등의 목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성적 적응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 실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5(1), 53-83.

김성 (2011). 성중독자의 심리적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성 (2012). 섹스중독 쇼크. 서울: 행복에너지.

김세진, 김교헌 (2013). 인터넷중독 개선을 위한 인지적 접근 : 조절실패와 갈망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421-443.

김은혜, 이주경 (2014). 중독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1). 5-30.

박선경, 송원영 (2014).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261-278.

박중규, 배성만 (2012).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19-434.

서울신문. (2014. 8. 23). [前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장소 옮겨가며 5차례 '노출'… 신고前 2시간 동안 행방 묘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3002008에서 검색.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신나라, 송원영 (2016). 성적 공상의 양면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장애, 범죄, 치료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339-351.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 2013 성매매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최병일 (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훈석, 용정순, 김교헌 (2013). 한국형 성인용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09-726.

한국일보. (2014. 8. 13). '기내 성추행'한인 대학교수 체포. http://www.hankookilbo.com/v/f5c8ed40febb46238d0e0fe821af1b44에서 검색.

한국일보. (2015. 11. 9). '사건 6년' 성추행 의혹 목사 이번에는 면직될까. http://www.hankookilbo.com/v/4a4896e520344c638ab61a28a03a2d88에서 검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mental disorder(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Burt,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Carnes (1983)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Center City, MN: Hazelden.

Carnes, P. (2001).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3rd. ed.* Center City, MN: Hazelden.

Carnes, P. J., & Wilson, M. (2002). The sexual addiction assessment process. In P. J. Carnes & K. M. Adams (Eds.), *Clinical management of sex addiction* (pp. 3 - 20). New York: Brunner-Routledge.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Greenfield (199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a preliminary analysi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2*(5), 403-412.

Kalichman, S. C., & Rompa, D. (2001). The Sexual Compulsivity Scale: Further development and use with HIV positive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 379 - 395.

KBS. (2015. 10. 24). 돈 벌려고 왔는데…외국인 여성 성매매 '악몽'.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0108&ref=A에서 검색.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Young, K. S. (2001) *Caught in the net.* Bloomington, Indiana: 1st Books Library.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YTN. (2015. 12. 21). 우체국 공무원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덜미. http://www.ytn.co.kr/_ln/0115_201512212204374015에서 검색.

원고접수일: 2016년 1월 14일
논문심사일: 2016년 1월 28일
게재결정일: 2016년 2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 Vol. 21, No. 1, 225 - 24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nline Version Sex-Addiction Scale

Song, Wonyoung
Konyang Univ.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Park, Seon Kyeo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in, Na Ra
Baekje General Hospital
Dept. Psychiatry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help develop the online version of the Sex-Addiction Scale and to confirm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Participants were 264 adults for the first survey, 986 adults for the second survey and were from all over the nation; each participant was, assessed online. 122 preliminary items were collected and 30 final items were selected in 4 factors (sexual fantasy and copycat, difficulties in daily life, tolerance, deviant sexual behavior). Psychometric properties such as test-retest reliability, split-half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s were appropriate and the conversion-discrimination validity was adequat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ideas for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sex addiction, online scale, behavioral addiction, sexual problem